

개발·불사 욕심 줄여야 자연이 산다

사찰환경 평가 긍정반 부정반 아직 산막기능 건재, 녹색의 중심 고발 아닌 기록위주의 탐사에 중점

16개 사찰생태기행 '명과 암'

근래 들어 사찰의 환경이 여기저기서 많이 위협받고 있다. 사찰환경의 중요성은 단순한 자연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행환경에 직결돼 있고, 수행환경 문제는 곧 한국불교의 사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증대해왔다.

필자가 2002년 3월에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어 108사찰 생태조사에 나서게 된 것도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념에서였다. 10년 원력으로 시작한 이 작업은 오늘의 사찰환경의 명암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지식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 작업은 학술적인 생태조사라기보다는 탐사(探査)와 기행(紀行)의 중간형태로 시작했다. 양산 내원사를 비롯해 몇 곳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참여 없이 필자와 동식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당게는 4-5명, 적게는 2-3명이 1박 2일 동안 해당사찰 주변을 탐사해 생태현황을 기록하고 사진에 담았다. 현재까지 돌아본 사찰은 모두 16개이며, 1개 사찰당 원고지 60-80매 분량의 기록물과 50매 내외의 자료사진을 모았다.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돌아본 사찰의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었다. 사찰주변의 생태환경은 우리나라 자연의 마지막 보고이자 산막(山幕)으로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지상주의의 피해(被害)로, 더러는 사찰불사로 인한 자해(自害)의 결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탐사자들의 진단이 있었다.

내소사 전나무 숲 등은 수행자들 원력이 낮은 결과물

탐사를 마친 16개 사찰의 자연환경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오늘날 우리의 자연이 이렇게나마 존속하게 된 데는 사찰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어디나 녹색의 중심에는 사찰이 앉아있고, 사찰 주위는 어디나 잘 보존된 숲이 감싸고 있다. 아무리 명산이라도 그곳에 사찰이 없었더라면 누가 그 숲을 지금껏 지켜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백양사 비자나무숲은 백양사가 산막이었고, 양산 화엄벌의 산중 늪은 내원사가 산막이었으며, 오대산 전나무 숲은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월정사가 산막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즉, 그동안 사찰이 내셔널트러스트 기능을 해왔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자연은 그대로 둔다고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꾸고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돌아보면 1천6백년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은 자연지킴이로 각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숲을 유지하여 국토를 푸르게 하는데 공헌해왔다. 그리고 내소사 전나무 숲이며, 백양사 비자나무 숲이며, 불명사 금강송 숲이며... 이 모두가 수행자들의 원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물려진 숲들이 아니던가.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한 것들을 지키고, 희귀종들을 보존해왔다. 현재 절집과 절집 주변에 남아있는 많은 천연기념물들과 희귀종들이 그것을 잘 증명해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의 사찰환경이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크게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정부의 실책으로 천성산과 북한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다. 특히 지자체 이후 지자체의 개발정책으로 사찰이 원하지 않는 진입로 포장, 주차장 건설 등의 불사가 잇따랐고, 그 결과 환경이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108사찰 생태기록은 고발위주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자연생태 탐사를 통해 우리시대 자연생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모니터 차원에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후인들에게 탄산지식이 될 것이다.

사찰환경을 이야기할 때 인구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분별없는 불사 문제다. 경상도 모 사찰은 근래 지장전을 새로 지으면서 무리한 욕심을 부려 건물 뒤쪽 산을 무려 8미터나 무지막지하게 절개 훼손했다. 조금만 욕심을 줄였더라면 전각 모양새도 살리고 산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연미 잃어가는 조경 아쉬워, 귀화 식물 생태계 위협

그리고 상당수의 사찰 계곡들이 인공적으로 쌓은 보(池)에 의해 자연성을 잃고 있었다.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 부득이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대개는 불필요한 일본식 조경문화의 잔재였다. 이 보에다 관상까지 풀어놓고 인공사료를 넣어주고 있다. 보는 물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을 떨어뜨리며, 사료 속에 들어있는 영양제, 방부제, 항생제 등은 계곡에 살고 있는 토종 어류에게 예상치 못한 유전자변형을 가져다줄 위험이 있다.

1년여 사찰생태 탐사에서 놀라웠던 것은 사찰 주변에 귀화식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산중사찰의 고유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귀화식물들은 지자체의 관광개발과 분별없는 불사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다. 고유생태계가 파괴되면 맨 먼저 어김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귀화식물이기 때문이다.

일부 귀화식물들은 토양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고유종과 서식공간을 잠식하거나 파괴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을 멸종시키거나, 곤충이나 새 등의 먹이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더러는 병원체 등 전파하기도 한다.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한 방안으로서, 각 사찰마다 1-2종씩 지표종을 선정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표종이란 해당 사찰의 환경의 변화나 고유한 물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을 대변하는 동식물 종을 말한다. 굳이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범어사의 계곡의 버들개, 서울 국사봉 사자암의 꿩꼬리, 강화 정수사의 가재, 예천 운문사의 홍점알라나비, 고한 정암사의 열목어...등등이 지표종이 될 만하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린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전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제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증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극묘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호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심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훈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비로운 가르침을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윤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온누리에 불법이 두루 퍼져 만없는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윤력은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양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해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달달은 흔집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협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윤장대(보물 제684호)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하실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리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공부선 지장보살 · 업장대

보물명전 심존불

진경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연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국립보존

경남대림경원

명동사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송송채(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송송채(대구) : 중앙고속도로 → 민등 → 예천IC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 송 : (054)655-8405